



주간통일정세 2008-09(2008.02.25~03.0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0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중국 대사관 방문(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북한 주재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대사는 대사관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인사를 전달하고 자신이 마련한 선물을 전달,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인사를 전한 다음 류 대사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진 당 부장, 박경선, 지재룡 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
- ※ 김 위원장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2000년대 들어 모두 4회로, 작년 3월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중국 대사관을 찾았으며 앞서 2000년 3월과 2001년 7월에도 중국 대사관을 방문

나. 정치 관련

● 北, 3.1절 맞아 ‘반외세 자주’ 강조(3/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언론매체들은 3.1절 89주년을 맞아 “반미·반일 투쟁”과 “민족 자주”를 거듭 강조
- 노동신문은 1일 기념사설에서 “89년 전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진 봉기는 우리 민족의 견결한 반외세 자주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며 “반외세 자주를 떠나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
- 신문은 특히 “미·일·남조선(남한) 3각 군사동맹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분자들은 외세와 공조하고 동족대결을 일삼는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선중앙텔레비전은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한 뒤 “3.1 인민봉기는 무장한 원수는 반드시 무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도 가르쳐 줬다”고 주장

● 北, 뉴욕필 인터뷰로 체제 선전(2/29,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 언론매체들이 2월 26일 평양 공연을 한 뉴욕필 교향악단의 단



원과 동행 기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3일째 내보내 이들이 북한의 교육 제도와 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

- 평양방송은 29일 “미국 뉴욕교향악단의 평양방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던 미국 CBS 방송 기자 마르샤 쿠쿠”가 이 방송 기자와 만나 북한을 “대단히 매혹적인 나라”라고 말했다고 보도,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뉴욕교향악단 연주가 오까모토 사토시”가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에서 이 방송 기자와 만나 북한의 무료교육제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 안경점이 종합상점으로(3/2, 조선신보)

- 북한 회사들이 안경전문점에서 종합상점으로 변신하거나 백화점이 부대사업으로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등 업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조선신보에 따르면, 1993년 평양에서 개업한 ‘평양안경상점’이 2005년에는 업종 확대를 통해 ‘고려심청회사’로 발전, 현재는 생필품과 예술품까지 취급하는 ‘종합상점’으로 발돋움했다고 보도
- 고려심청회사는 2007년 말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의 2층짜리 건물을 보수해 ‘월향종합상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업인 ‘안경전문봉사’는 물론 경공업제품 및 식료품 판매와 식당과 편의시설도 운영

● 北, 교류전력의 직류화 기술보급에 박차(2/28,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 인버터(inverter)센터가 2월 ‘전력전자기술전시장’을 개장해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에 있는 인버터센터는 북한에서 “인버터 기술 보급의 거점”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곳의 연구사와 보급원들은 “인버터 기술에 관한 과학연구 사업과 경제부문에서 제기되는 인버터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 또한 이 센터의 전력전자기술전시장에서는 각종 출력의 인버터 제품과 수백종의 인버터 부품은 물론, 다양한 전자제품 부속품을 전시하고 고객 상담실도 운영. 전시장 기술진은 공장, 기업소의 ‘주문 봉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
- ※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에너지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전력 생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인버터 기술 수요가 높은편임. 대규모 화력이나 수력발전소에서는 교류 전력을 생산하지만 태양광이나 메탄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에서는 주로 직류 발전을 함으로 직류 전력을 인버터를 이용, 교류 전력으로 바꿔야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쓸 수 있음.



- 北, ‘2·17과학기술돌격대’ 생산현장에 9천명 파견(2/17, 민주조선)
 - 생산현장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첨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가 현재 70여개 생산단위에 9천여명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고 민주조선이 보도
 -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8년 2월 제2차 7개년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중추 역할을 담당할 17개 생산단위에 과학자·기술자들로 구성된 돌격대를 파견, 조직된 단체로 생산현장의 신기술 개발, 기술 및 공정 개선, 기술교육 등을 지원
 - 이 신문은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의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현재 9천여명의 과학자·기술자들이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해 여러 부문의 70여개 단위에 달려나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와 함께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에 망라된 국가과학원의 여러 분원, 연구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컴퓨터(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의 과학자·기술자, 대학 교원들이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고 보도

- 北, 1975~1989년은 ‘평양 번영기’(2/27,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에서 1975~1989년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현대적인 거리와 대형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건설돼 “평양 번영기”를 구가했다며 평양 건설 과정을 소개

- 北, 올해 첫 내각 전원회의 개최(2/3, 민주조선)
 - 북한이 2월 초 김영일 총리 주재로 올해 첫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계획의 완수 문제를 논의했다고 민주조선 최근호(2.3)가 보도
 - 회의에서 광범기 부총리는 올해 경제계획을 완수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관건적 문제, 내각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이라고 강조하고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전투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열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언
 - 회의에서는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생명선”이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일컫는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촉구



라. 군사 관련

● 北, 키 리졸브 연습관련 대변인 담화, “비싸게 마련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3/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일 한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호적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발표
- 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미 증원군의 효율적 전개’ 방법으로 전쟁을 이룬바 승리로 이끌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추종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대변인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담화 말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위력한 억제 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한미연합해병사령부 개칭 비난(3/1, 통일신보; 3/2,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 통일신보는 최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연합해병사령부(CMFC)를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로 변경한 것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이번 변경이 “연합해병사령부를 작전과 전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로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에서 해병대를 선전대, 돌격대로 이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그들의 북침 전쟁 도발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고 주장

● 北, 한·미 2월 170여회 대북 공중정탐했다고 주장(2/29,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2월 들어 170여 회에 걸쳐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주장, 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대한 한·미 공중정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달 미군과 국군의 공중정탐은 각각 100여 회와 70여 회에 달했으며, 대북 공중정탐에 고공전략정찰기 ‘U-2’, 전략정찰기 ‘RC-135’와 전술정찰기인 ‘RF-4C’, ‘RC-12’, ‘RC-800’ 등이 이용됐다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부르주아 가석방제도는 반동·기만적(2007년 겨울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자본주의 사회의 가석방 제도는 “근로 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 탄압을 강화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 보호하는 데 적극 이용되며 부르주아(부르주아) 독재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반동적인 형벌제도”라고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주장

※ 북한에도 가석방 제도가 있으며 2004년 5월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엔 ‘만기전 석방제도’가 명문화돼 있음. 제432조(만기전 석방의 사유)는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고 형벌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개준(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만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한다”고 명시

● 北김일성대, ‘대동지지’ 국역본 발간(3/2,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조선후기 김정호의 지리지 ‘대동지지(大東地志)’를 국역해 2권으로 편집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보도,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발굴 정리하고 널리 소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저명한 학자들로 “번역집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해 국역이 이뤄졌다고 보도

● 김정일 지시로 전역서 아침체조(3/1, 민족통신)

-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아침 울동체조에 참여하고 있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1일 보도, 민족통신은 평양 해방산호텔 종업원의 말을 인용, “수요일과 토요일 빼고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 15분 가량 울동체조를 한다”며 이 체조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지침”을 내려 전역의 직장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전언

- 이 종업원은 또 “수요일은 자기 과와 관련한 학습을 하고 토요일에는 정치사상교양 학습을 한다”면서 ‘수요학습’과 ‘토요학습’은 한 시간씩 이뤄진다고 설명, 민족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노년, 중년, 어린이 등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울동의 체조를 선보인다고 덧붙였다.

● 대학 전공교과서 2012년까지 개편(2/25, 노동신문)

- 북한이 오는 2012년까지 대학과 전문학교의 모든 전공과목 교과서와 참고서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방침이라고 노동신문이 보도



- 출판사의 사회과학편집국은 사회과목 교재내용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기계·광업편집국에서는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교재 편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 금속공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제철’, ‘합금철야금’ 등의 교재를 새로 출간할 계획이며, 농업편집국은 국토, 축산, 과수, 양어부문과 생물공학 부문의 교재 편찬을, 의학·화학편집국과 기초·전기편집국에서도 ‘옷본보기’, ‘컴퓨터(컴퓨터)망 보안체계’, ‘21세기 에너지 이용 기술’ 등의 과학기술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신문은 소개
 - 이와 함께 출판사에서는 “공장대학들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신문은 언급
- **北수중발레팀,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총력(2/28, 조선신보)**
 - **北당국, 농장원 식량부족 실태 조사(113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2월 들어 전국 농장원들의 식량부족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파종기 때의 가뭄과 잇따른 홍수 피해로 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최소 소요량 520만t에 비해 120만~140만t 부족한 380만~400만t으로 추산
 - 소식지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도 배급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달초 현재 배천, 룡연, 용진군의 쌀값이 1kg당 북한 돈 1천300원대, 옥수수는 1kg당 720원에 달한다고 전언
 - **北클래식, 날로 세계화(2/27, 조선신보)**
 - 평양에서 2월 초 열린 설 경축 음악회에서 드레스 차림의 소프라노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르는 등 북한의 클래식 무대 매너와 공연 수준이 날로 세계화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中동북공정 강력 비판(2007년 2호, 력사과학)**
 - 북한의 계간 ‘력사과학’(2007.2호)에 따르면 리광희 박사는 ‘고구려의 왕호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고구려 군주의 칭호인 왕이라는 표현이 고구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라며 고구려의 왕은 중국 황제의 제후라는 주장을 논파,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이며 당시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권국가였다.” 북한의 역사가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정면 논박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북·미, ‘비밀신고’ vs ‘분리신고’ 기싸움(3/2, 연합)

-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발표 예상시점이 4월말인 점을 감안, 양측이 3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막판 살바싸움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은 2일 미국은 현재 ‘완전하고 충분한 핵신고’를 내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활동 부분에 대한 ‘비밀신고’를 허용키로 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북한측도 ‘비타협적 자세’에서 벗어나 ▲플루토늄 추출 내역에 대한 신고 및 검증을 보장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일단 놔두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한 뒤 추후 논의하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의회 통보 등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최근 잇따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것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측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장국 중국과의 대북 설득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한 대북소식통은 설명
-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힐 차관보가 1일 다시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김계관 부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국측 안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 北, 6자회담 빨리 타결되도록 하자(2/26, 연합)

- 송석환 북한 문화성 부상 겸 조선예술교류협회 회장은 26일 미국에 대해 “6자회담이 빨리 타결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北, 뉴욕필 공연보게 직장·학교 조퇴(2/28, 민족통신)

- 뉴욕필 교향악단의 평양공연이 열린 26일 북한 당국은 대부분의 직장과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학교들에서 1시간 일찍 조퇴를 시켜 오후 6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된 공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은 28일 뉴욕필 공연 취재를 위해 방북한 특파원의 평양발 기사에서 이곳 한 예술계 여성은 이번 공연이 “문화교류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을 미치갱이(미치광이)로 생각해왔지만 미국의 1류 교향악단이 우리 공화국(북한)에 와서 우리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감격”했



다고 말하고 “두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아리랑’이 하늘에 올릴 때는 통일조국의 서막이 열리는 기분을 가졌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언

● **北어린이들, 뉴욕필에 ‘징글벨’ 노래 선물(2/28, 조선신보)**

- 미국 어린이는 北에 작곡 선물, 북한 어린이는 뉴욕필에 노래 선물
- 북한 최고의 어린이 예술단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어린이들이 27일 북한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에 참가하지 않은 뉴욕필하모닉 단원들에게 ‘징글벨’과 ‘클레멘타인’ 등 미국인들의 귀에 익은 노래를 깜짝 선물
- 한편 이날 북한의 국립교향악단과 실내악 협연을 가진 뉴욕필은 미국 초등학생이 작곡한 실내악곡 3곡을 선물, 특히 방글라데시계 미국 소녀인 사라 타스밀라(12)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작곡한 ‘고요함(SERENITY)’은 양 교향악단이 협연해 북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음.

● **北언론, 뉴욕필 협연 보도(2/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국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한의 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소식을 짙막하게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뉴욕필의 평양 도착부터 같은 날 환영 연회, 26일 동평양대극장 공연 소식을 잇달아 보도

● **北, 美 첩보위성 요격은 ‘군사패권주의’ 비난(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 해군이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해상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해 고장난 첩보위성을 요격하는 것은 “우주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자는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우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행위’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첩보위성 요격 사실을 전하고 “관측통들은 이것이 미사일방위체계 개발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중대한 계기로서, 미사일방위 체계 수립을 위한 실전의 시험이었다고 평하면서 위성요격 이유와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고 강조

다. 기타외교 관계

● **北-獨 수교 7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2/29, 평양방송)**

- 북한이 독일과 수교 7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를 28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29일 보도
-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독친선협회,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각종 건축물들이 소개됐으며, 토머스 쉐퍼 독일 대사와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



- 2월 27일 쉐퍼 대사는 대사관에서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장 등을 초청해 수교 기념 연회를 개최
- ※ 북한과 독일은 2001년 3월 1일 수교

● **런던 北대사관, 에릭 클랩튼 내년 초쯤 평양 갈 것(2/26, 연합뉴스)**

- 영국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은 내년 초 일본 공연에 맞춰 북한 평양에서 콘서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이 26일 발표
- 클랩튼 공연에 앞선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은 영국의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의 주선으로 추진 중, 클라크는 서방예술가로는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작년 4월 고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친선예술축전에 참석한 바 있음.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범청학련 北본부, 南의장 체포 비난(3/1, 연합뉴스)**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는 3월 1일 성명을 내고 남한 경찰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를 체포한 것은 “동족 사이에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용납못할 반인권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북측본부는 성명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벌인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 될 수 없다”며 “6.15 시대에 파쇼적인 보안법을 휘둘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사의 흐름을 불신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려 세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고 주장

● **북, 남북관계서 이념없는 실용주의는 위험(2/29, 조선신보)**

-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선신보가 주장
- 조선신보는 29일 ‘이념과 실용주의는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핵·개방·3000구상’이 고작이다”며 “핵포기와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마치 김영삼 정권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언급, 또 신문은 “개방하라느니, 10년안으로 북 주민의 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느니 하는 얘기도 너무도 북을 모르는 소리이며 또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남관계에서도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이념이 없는 실용주의는 큰 위험성을



떠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며 “북측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래 이 대통령에 대해 침묵하는 배경을 시사

나. 남북교류

● 남북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약(2/28, 연합)

- 남북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을 대행하는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남북협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
- 남북협회는 대북 제공 물자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에 걸리는지 여부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27일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
 - ※ 남북협회는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제공하고 지하자원으로 상환받는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한 이행기구로, 2007년 5월 출범

● 통일 대비 벼 품종 ‘평원’ 육성(2/28, 연합)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통일에 대비, 북한에서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벼 ‘평원’을 육성했다고 28일 발표, 이번에 육성된 평원은 대표적인 북한 벼 품종인 ‘삼지연4호’를 개량한 것으로 삼지연4호의 추위에 대한 저항성인 내냉성(耐冷性)을 지니고 있으면서 미질이 나쁜 단점을 개량한 품종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중, 북핵신고서 북-미 주장 병기 제안

- 북핵 6자회담의 최대 현안인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미국에 대해 1972년 2월의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 당시 발표한 공동성명 ‘상하이 코뮌니케’를 참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주장을 병기해 문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도쿄신문』이 북수의 6자회담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보도(2/29)했음.
- 이와 관련,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金桂冠) 외무성 부상과 베이징에서 회담(2/19)을 한 뒤 “중국이 내놓은 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음.
- 그러나 미국은 아직 중국측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닉슨-마오쩌둥 간 ‘상하이 코뮌니케’(1972.2): “미국과 중국의 사회제도와 대외정책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만 문제나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정세에 대해 쌍방의 견해를 표명하고 “미-중의 관계정상화로의 진전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명시해 양국간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음.

나. 미·북 관계

● 미 싱크탱크, “북한 전 세계 15번째 약체국”2/26

-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와 「국제개발센터」(CGD)는 전 세계 1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 정치, 안보,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
-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는 전체 평균 0.52점(10점 만점)을 얻은 소말리아였으며, 아프가니스탄(1.65), 콩고민주공화국(1.67), 이라크(3.11)가 뒤를 이었음.
- 북한은 경제 0.52, 정치 0.95, 안보 7.28, 사회보장 6.73 등 총 평균 3.87점을 기록해 15위에 랭크됐음.
-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74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꼽혔으며 G8(선진 8개국) 멤버인 러시아는 65번째, 인도는 67번째 약체국에 랭크됐음.

● 뉴욕필, 평양 공연(2/26)

-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북한 공연이 동평양극장에서



실시되었음.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관람한 후 기자들에게 이날 공연이 “우리(북·미 양국)를 정점으로 밀어 올렸을 지도 모른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대치 상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DIA, “북,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 계속 개발”(2/27)**

- 북한은 발사 실험을 실시(2006.7)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과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조한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미군 고위 정보당국자가 밝혔음.
-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군은 훈련과 장비가 부족하지만 막강한 화력의 대포와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라이스, 북핵 협상 진전 시사(2/27)**

- 미 국무부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일본 언론회견 및 동행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나는 솔직히 북핵 협상이 정말로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며 협상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라이스 장관은 특히 중국측과 북핵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면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베이징에 남겨 계속 협의토록 한 바 있음.

● **WSJ, “뉴욕필 평양공연 대성공..북에 이정표 세웠다”(2/27)**

- 미 언론은 뉴욕필 하모닉의 역사적 평양공연이 비록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대성공 속에 막을 내림으로써 북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음.
-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필이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한국민요 아리랑 연주가 역사적인 평양공연의 감동적인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관객들은 5분여 동안 갈수록 박수소리를 더해가면서 그들 스스로 클라이맥스를 연출했다고 전했다.
- 저널은 공연이 끝난 뒤 일부 단원들이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 공연이 북·미 간에 급속한 화해분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외교관들은 거의 없지만 반세기 넘게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두 나라의 관계에서 예외적인 순간이었음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WP, “북한 개방 신호 크게 엿갈려”(2/28)**

- 뉴욕필 하모닉의 평양공연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 사건이 은둔의 나라인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신호는 크게 엿갈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2/28)했음.



-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북한으로부터의 엇갈리는 메시지”라는 평양발 기사에서 뉴욕필 하모닉에 대한 반응은 개방에 대한 모순된 북한의 입장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고 평가했음.
- **부시, “김정일과는 개인적 유대 갖지 않겠다”(2/28)**
 -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비록 견해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세계) 지도자들과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대선을 치르는 러시아 새 지도자와의 개인적 유대 강화를 강조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개인적 유대가 “불가능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북, 뉴욕필 평양공연 불구 핵문제 침묵”(2/29)**
 - 「워싱턴 포스트」보도(3/1)에 의하면,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은 도쿄에서 뉴욕 필 평양 공연을 설명하면서 공연 당일 평양에서 자신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등이 북한의 핵협상 수석대표인 김계관 등 북한관리들과 오찬을 했는데 그들은 핵물질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했다고 의심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설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음.
 - 리비어 회장은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고 외교적인 규제를 해제하기로 작년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 동안, 이 문제들을 잠시 유보해두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미, “북 외화벌이 마약거래서 가짜 담배로 대체”(2/29)**
 - 미 국무부는 외화벌이를 위해 과거에 마약거래에 관여해왔던 북한 당국이 위험부담이 큰 마약 거래를 수익성이 큰 가짜 외국담배 거래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이 날 매년 발간, 의회에 보고하는 「국제 마약통제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가짜 담배가 계속해서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북·미, 북핵 신고 담판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핵 신고 문제를 담판짓기 위해 방콕으로부터 베이징에 도착(3/1)했으나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3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국은 매년 4월 말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명단발표 한 달 반 전인 3월 중순까지 국무부가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함.



다. 일·북 관계

● **일, 초당파 의원들 연내 방북 추진**

- 일본 자민당의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외교조사회장과 의원연맹 ‘한반도 문제 연구회’를 설립한 이와쿠니 데쓰도(岩國哲人) 민주당 전 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담(2/27)을 갖고 납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로 연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키로 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중국 관계

● **중 공산당, 17기 2중전회 개최(2/25~27)**

-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7기 2중전회)가 정 부기구 개혁방안 및 정부기관 인사개편안 등을 승인하고 폐막했음.
- 공산당 17기 2중전회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치 국 상무위원 9명 등 204명의 중앙위원, 167명의 후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제(大部制)를 비롯해 국무원(정부) 조직개편안과 지도 부 인사개편안을 승인했음.
- 후 주석을 비롯한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현 지도부가 2기 체제에 돌입하고 차세대 후계자로 거론 되는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 리커창(李克強) 상무위원이 국무원 수석 부총리에 기용될 것으로 중국 및 홍콩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음.

● **중, 전인대와 정협 개막(3/5)**

- 중국의 의회격인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치자 문기구인 제11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兩會)가 개막됨.
- 5년 임기가 끝나 회기가 바뀌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의 제2기 집권이 출범하고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이 차세대 후계자로 확정되는 데다 국 무원 부처 통폐합안이 상정돼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음.

나. 러시아 관계

● **러 대선, 푸틴 후계자 메드베데프 압승 예상**

- 러시아 대선(3/2)에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42) 제 1부총리,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63), 자유민주당의 블라 디미르 지리노브스키(61), 민주당의 안드레이 보그다노프(38) 등 총 4명이 출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목한 메드베데프가 압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미 관계

● 미 육군,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80억 달러”(2/28)

- 용산기지를 비롯해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 육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 조지 케이지 미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의 2009회계연도 국방예산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한국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라. 한·중 관계

● 중, 김하중 통일부장관 내정 환영(3/2)

-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한·일 관계의 강화로 한·중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을지 내심 걱정해 왔으나 중국 전문가가 통일부장관에 내정됨으로써 한·중 관계의 긴밀한 유지와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 미·중 관계

● 중, 미국과 인권대화 재개 용의(2/26)

- 중국은 올 8월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인권운동가들의 보이콧 움직임을 막기 위해 5년간 중단됐던 미국과의 인권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측은 모든 방면에서 미국과 기꺼이 접촉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 부시, “중에 인권문제 압력 주저하지 않을 것”(2/28)

-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 베이징(北京) 올림픽에 참석해 중국에 인권문제와 수단 남부의 다르푸르 학살사태,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중, 군사고위급 회담 개최(2/28~29)

-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중 군사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확보하려는 군사능력과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와 의도에 대해 상호 이해가 더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음(2/30).

-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국방예산을 최근 계속 두 자리 이상 늘리고 있는데 따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의 작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17.8%가 늘어난 450억 달러이었음.
- 한편 미·중 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이번 군사고위급 회담에서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음.

바. 미·러 관계

● WP, “미·러관계, 권력이양기 맞아 교착상태”(3/1)

- 「워싱턴 포스트」(WP)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 대선 유력주자들이 러시아의 새로운 권력구조를 이해하고 긴장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관계가 교착상태를 맞고 있다면서 핵협정이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편한 증거라고 전했다.

사. 중·일 관계

● 중·일, 국방협력 강화 합의(2/27)

-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은 베이징에서 사이토 다카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회담을 갖고 올해 평화우호조약 체결 3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